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16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전쟁 공포 씻은 시장..나스닥·S&P500 '사상 최고'

- 미국증시 혼조: 나스닥 +1.60%, 다우 -0.15%
- 미국-이란 종전 협상 낙관론 속 대형 기술주 랠리
- 베이지북 "전쟁, 불확실성 키워"..금리 경로 불확실성은 여전

Summary

미국증시 상승: 나스닥·S&P '사상 최고치'

4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 마감했으나 대체로 전쟁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0.15% 하락한 48,463.72에 마감했으나 나스닥 지수가 1.60% 상승한 24,016.02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 역시 0.80% 상승한 7,022.95에 거래를 마침. 러셀2000은 0.3% 상승 마감. 이 날 상승으로 S&P500은 사상 처음으로 7천선을 돌파하며 지난 1월 27일 이후 3개월여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도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약 반 년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고쳐 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03% 하락한 18.17에 마감.

(다우 -0.15%, 나스닥 +1.60%, S&P500 +0.80%, 러셀2000 +0.30%)

용수철 튕기듯 급반등한 4월 증시

S&P500 지수는 지난달 30일 6,316.91까지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20,690.25까지 하락했었음. 2월 28일 시작된 중동 전쟁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그로 인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이른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 다만 이 달 들어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두 지수는 말 그대로 용수철처럼 강하게 튕겨 오름. S&P500 지수는 11거래일만에 710포인트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3,300포인트 급반등.

미국-이란 2차 회담 가시권

결국 상황은 마무리될 것이고 시장이 빠르게 반영했던 극단적 상황 악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 급반등으로 이어짐. 이날도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실을만한 소식들이 들려옴. 미국과 이란은 오는 21일로 종료되는 휴전을 2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백악관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2차 대면 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낙관적 분위기에 힘을 실음. 인터넷 매체 MS NOW는 보다 구체적으로 회담이 다음주 파키스탄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파키스탄 고위 관료 두 명을 인용해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월 말까지 이란과 종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물론 미군의 세 번째 항공 모함이 곧 중동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이는 이란과의 협상이 무산될 때를 대비해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수단, 즉 결국은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과정에서의 수단으로 해석돼 낙관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음.

베이지북 "중동 분쟁, 불확실성 키워"

연준은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경기 상황을 평가. 연준은 중동 분쟁이 고용과 가격 정책, 자본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하는 불확실성의 주 요인이 됐다고 진단. 많은 기업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물가 흐름은 에너지 비용 급등이 두드러져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평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고용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했다고 진단. AI가 전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

금리 경로와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기준금리를 당장 내리기보다는 기다려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하며 상당기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힘.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후임 임명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잔류할 경우 그를 해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힘.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다음달 15일 만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겨두고 있어 의장직 종료 이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사용 의혹과 관련한 연방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케빈 워시 후보자가 지명됐고 오는 21일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인준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으며 케빈이 맡게 되면 금리는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는 재료로 작용함.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수입물가는 전달에 비해 0.8% 상승해 2% 상승을 예상한 시장 전망치는 하회.

특징종목

빅테크의 날..테슬라 급등

기술주가 시장 강세를 견인. 반도체주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 영향에 상대적인 부진을 보였지만 빅테크 전반이 크게 상승해 시장 상승을 떠받침. 마이크로소프트(+4.61%), 엔비디아(+1.20%), 애플(+2.94%), 브로드컴(+4.19%), 구글 알파벳(+1.26%), 메타 플랫폼스(+1.37%). 엔비디아는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

한편 이 날 빅테크 내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테슬라(+7.62%).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인 AI5의 '테이프 아웃'을 축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급등. '테이프 아웃'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물리적 설계를 마무리 짓고 제조 시설인 파운드리에 설계도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제품 생산의 첫 단계에 해당. AI5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으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됨. 머스크는 특히 "AI5는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AI 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해. 그는 "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삼성전자와 TSMC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으며 삼성전자 한국 공장에서 제조된 시제품 사진을 함께 공개했음.

빅테크 중 유일하게 하락한 아마존닷컴(-0.21%)은 위성 통신 업체 글로벌 스타를 인수한다고 현지시각 14일 밝힘. 이번 인수는 약 115억 7,00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되며 아마존은 이를 통해 저궤도 위성망 사업 '아마존 레오'용 위성 기존 240여기에 글로벌 스타의 위성 24기를 추가함. 레오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설치하면 지구 저궤도에 띄운 위성을 통해 신호를 받는 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직접 경쟁 상대.

양자컴퓨팅 스타트업의 약진(ft.엔비디아)

전날 선도주 아이온큐가 양자 인터넷의 토대가 될 기술을 발표하며 급등했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들이 이틀 연속 급등세를 유지함. 이 날은 엔비디아(+1.20%)가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아이징'이라는 이름의 오픈소스 AI 모델 제품군을 공개. '아이징'은 양자 프로세스를 만드는 연구자들을 돕는 설계, 제어 도구로 양자 컴퓨팅의 최대 약점인 '오류' 수정 과정에서 정확도를 최대 3배 높여준다고 함.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가 양자 컴퓨터의 운영 체제 역할을 해 불안정한 큐비트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자신함. 이에 양자컴퓨터의 현실 세계 활용 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며 관련주가 급등. 아이온큐(+20.95%)가 전일에 이어 20%대 급등세를 시현했고, 리게티 컴퓨팅(+13.28%), 디 웨이브 퀀텀(+22.63%), 퀀텀컴퓨팅(+15.91%) 등 여타 관련주도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10% 내외 급등.

반도체주 혼조

반도체주는 혼조. 메모리 반도체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 대체로 하락. 샌디스크(-5.58%), 웨스턴 디지털(-0.33%), 시게이트 테크놀로지(-2.5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2.02%)는 내부자 매도 소식에 낙폭 확대. 미 증권 거래 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회사 내부 관계자가 총 24,000주, 약 1010만 달러어치를 매도했다고 함.

반면 브로드컴(+4.19%)은 메타 플랫폼스(+1.37%)와의 맞춤형 AI칩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강세. 브로드컴은 메타에 2029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칩을 공급하고 향후 수 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메타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폭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 지난달에는 대규모 추론과 추천 작업에 최적화된 MTIA 칩 4종을 공개했고 2월에는 구글과 AI 칩 도입 계약을 맺는 등 공급처 다변화와 자체 개발을 동시에 추진 중. 한편 이번 계약으로 혹탄 브로드컴 CEO는 메타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음.

대형 은행주, 트레이딩 중심 실적 호조

대형 은행주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1.82%)가 예상보다 좋은 1분기 실적을 발표. 304억 3,000만 달러 매출에 주당 1.11달러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힘. 이는 시장 예상을 모두 웃도는 것으로 전분기 실적 호조는 주식 판매와 트레이딩 부문의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

모건스탠리(+4.52%) 역시 1분기 실적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강세. 특히 트레이딩 수익이 기대치를 상회.

지역은행 PNC 파이낸셜 서비시스(+0.39%)도 전분기 실적을 공새. 회사는 퍼스트뱅크 인수 후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예상을 하회했다고 밝힘.

이외 개별 특징주

나이키(+2.81%), 내부자 매수 소식에 강세. 엘리엇 힐 CEO는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주식 23,000주 이상을 매입했다고 밝혔으며 팀 쿡 이사는 110만 달러 상당의 주식 25,000여주를 매입.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도어대시(+10.02%)는 바클레이즈가 자율 음식 배달 기술의 단기 수혜주로 지목한 강누데 상승. 바클레이즈는 도어대시에 대해 자율 음식 배달 기술 도입의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라며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 업계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평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 테크놀로지스(+5.99%)도 강세.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버가 자율주행차 수 천 대를 구매하고 개발업체 지분을 인수하는데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

스냅챗 모회사 스냅(+7.86%)이 16% 규모의 직원 감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강세. 회사는 순이익 증대를 위한 자원 배분배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을 계획했다고 설명.

소프트웨어 업체 깃랩(+8.37%)은 구글과의 파트너십 확대 발표 이후 강세. 이번 파트너십 확대로 깃랩의 AI 솔루션이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될 예정. 올들어 깃랩의 주가는 AI 발전이 소프트웨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43% 이상 하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규모 개인 투자자의 당일 거래 제한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금융 플랫폼 주가가 강세. 로빈훗 마케츠(+10.41%), 위불(+11.17%), 찰스슈왑(+1.92%).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3거래일만에 상승(가격 하락).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관망세가 우세. 낙관론에 힘을 싣는 소식들에도 금리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확실한 재료는 아니라는 시각 속에 소폭 상승. 2년물 금리는 1.7bp 상승한 3.761%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3.6bp 상승한 4.283%를 기록함.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

리는 3.8bp 상승한 4.897%를 기록해 장기물에서 금리 상승이 더 두드러짐.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대체로 4.3%, 4.9%를 앞두고 상방이 막히는 모습.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28% 내외로 반영. 전날과 비슷한 수준.

달러 가치 8거래일 연속 하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8거래일 연속 하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가치 약세로 이어졌지만 유가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낙폭은 제한적.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073% 하락한 98.080에 마감해 전일에 이어 98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중.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81% 상승.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4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변할 수 있다고 평가. 그는 2주 사이에도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외환 문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며 필요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이 발언 이후 달러-엔 환율은 순간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해 상승세를 유지. 달러-엔 환율은 158.977엔으로 전장 대비 0.071% 상승.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474.20원 대비 1.30원 상승한 1,475.50원에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1,474.50원 기록.

국제유가 관망세..보합 마감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미국-이란의 2차 회담과 종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구체화된 일정에 대한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폭이 제한된 가운데 강보합 마감. 미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지난 주 미국 내 원유 재고가 91만 배럴 감소해 공급 제약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 것이 유가의 제한적 움직임으로 이어짐. 서부텍사스산 원유(WTI)5월 인도분은 0.01% 상승한 배럴당 91.29달러에 마감. WTI는 미 에너지 정보청의 원유 재고 감소 발표 이후 배럴당 92.92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음.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4.0% 하락.

금값과 은값은 종전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관망세를 유지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